

농구부 ‘제 42회 MBC배 전국대학농구 상주대회’ 최종 3위로 마무리

김예찬 기자 yechan@khu.ac.kr

【국제】농구부가 ‘제42회 MBC배 전국대학농구 상주대회’에서 고려대와의 14일 열린 준결승 경기에 패배하며 최종 3위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우리학교는 B조에 편성돼 중앙대·동국대·상명대·한양대를 상대로 예선을 치렀다. 지난 6일 상명대와의 첫 경기에서 75-60으로 승리한 데 이어 8일 동국대전과 10일 한양대전에서도 각각 74-53, 99-85로 승리했다. 그러나 11일 열린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중앙대에 51-63으로 패하며 조 2위로 본선에 진출했다. 6개 팀이 오른 본선에서 우리학교는 건국대와 6강전을 치렀다. 경기는 2쿼터까지 37-32로 팽팽하게 전개됐다. 오벨레존(스포츠지도학 2025) 선수의 20득점 활약과 루키 신은찬(스포츠지도학 2026) 선수의 3쿼터 5득점 맹공에 힘입어 점수 차를 58-49까지 벌렸고, 이를 끝까지 지켜내며 승리를 거뒀다.

김현국 감독은 “상반기 리그에서 좋은 결과를 내며 본선에 진출했기 때문에 어떤 팀을 만나도 밀리지 않을 수 있다는 선수들의 자신감이 승리로 이어졌다”며 “평소 팀 훈련에서 집중적으로 연습했던 부분들이 차곡 차곡 쌓인 결과가 이번 경기에서 나타난 것 같다”고 말했다.

6강전을 승리로 장식한 농구부는 준결승에서 이번 대회 무패를 이어가던 고려대를 만났다. 우리학교는 지난 4월 열린 정규리그에서도 고려대에 69-77로 패한 바 있다. 1쿼터에서는 김서원(스포츠지도학 2023) 선수의 9

득점 활약에 힘입어 14-19로 비교적 선전했지만, 2쿼터 들어 점수 차가 24-43까지 벌어지며 분위기를 내줬다. 이후에도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결국 49-91로 패했다. 고려대는 이후 결승에서도 승리하며 이번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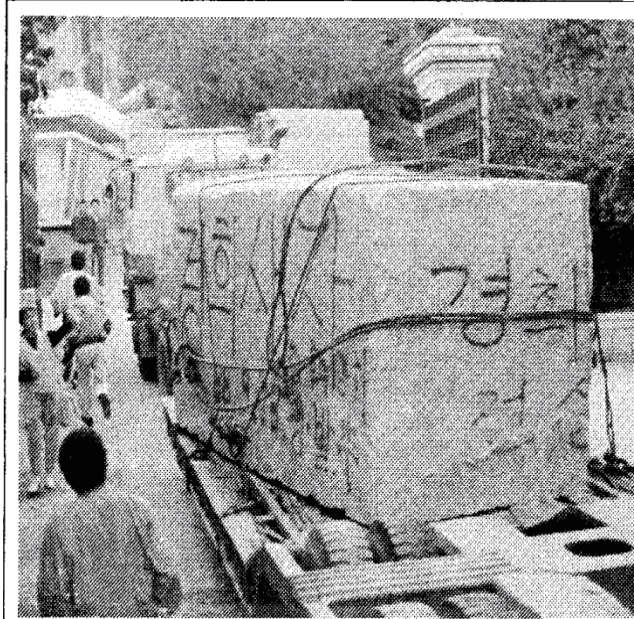
주장 김수오(스포츠지도학 2023) 선수는 “공격이 매끄럽게 전개되지 않아 선수들끼리 호흡을 더 맞춰야겠다고 느낀 경기였다”며 “4강까지 연달아 경기를 치르면서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가 쉽지 않았던 점이 가장 아쉬웠다”고 말했다. 김 감독은 “주전 선수들의 부상으로 정상 컨디션이 아닌 상태에서 경기를 치른 것이 가장 큰 패인이었다”며 “피로가 누적된 상황에서 상대의 강한 몸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과 공격 패턴이 발휘되지 못해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해 후반기 남은 리그 일정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선수는 “공동 3위도 좋은 성적이지만 더 높은 목표를 갖고 있었기에 아쉬움이 남는다”며 “후반기 남은 리그에서는 더 이상 패배가 없다는 각오로 매 경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농구부는 오는 9월 7일 성균관대와의 원정경기를 시작으로 하반기 리그 일정에 돌입한다. 김 감독은 “후반기에는 이번 대회에서 패했던 중앙대와 고려대를 다시 만나게 된다”며 “남은 중요한 경기들을 모두 승리한다면 정규리그 우승도 충분히 가능한 만큼, 이번 대회에서 드러난 상대의 장단점을 철저히 분석해 전략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농구부는 42회 MBC배 전국대학농구 상주대회에서 3승 2패를 기록하며 공동 3위의 성적으로 마무리했다. (사진=농구부 프론트 KBF 제공)



사자상에 사용될 원석을 옮기는 모습



“역사의 어둠을 깨는 빛으로,,

단단한 어둠의 겹질을 깨뜨리고 용솟음쳐 경희의 기상(氣象)이 될 사자상을 잉태한 돌의 모습이다. 사각의 돌이 한마리의 포효하는 사자가 되기 위해 받는 고통을 딛고, 살아움틀거리는 냇으로 고즈넉히 경희역사를 지켜나갈 사자상이 되듯이.

〈어용자 記者〉

(1988년 10월 10일 자 대학주보)

“그대 살아 숨 쉰다면 경희 이름으로 전진하라”

장현석 (경희기록관)

경희의유산⑦
‘웃는 사자상 ②’

여기, 언제부터가 경희인들 사이에 자주 회자해 온 문구가 있다. 최근에는 학교 축제 곳곳에도 등장했다. “그대 살아 숨 쉰다면 경희 이름으로 전진하라.” 대학 공식 슬로건도 아니고,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기록을 추적해 보면, 1987년 5월 대통령기 대학야구대회에서 경희가 우승했을 당시에 이 문구가 경희인의 기개를 복돋운 응원 구호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과연 이 문장은 어떻게 오늘날까지 전해질 수 있었을까. 그 실마리는 법학전문대학원 앞 동의마당에 있는 사자상에서 찾을 수 있다.

동의마당에 사자상이 건립된 것은 1989년 가을이다. 당시 한국 사회는 학생운동이 여전히 치열했고, 많은 대학에서 본부와 학생 간 긴장이 이어졌다. 경희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경희는 학내 구성원 간의 화합을 모색하고자 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학생운동이 정치투쟁에 경도되었다는 자

성의 목소리가 나왔고, 1987년 총학생회 산하에 ‘경희발전추진위원회’가 조직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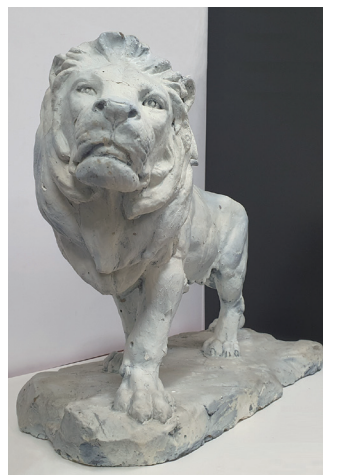
이들은 학내 구성원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 캠퍼스 환경 개선 운동과 함께 개교 40주년을 기념할 상징물로 사자상 건립을 추진했다. 그 과정에서 교직원과 학생들이 의기투합해 5천만 원의 성금을 모았다.

1988년 조각에 사용될 원석을 채취해 약 1년에 걸친 작업 끝에 완성한 것이 바로 지금 동의마당에 서 있는 사자상이다. 경희 구성원의 화합으로 빛어낸 뜻깊은 기념물인 것이다.

이 사자상에는 한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다. 교내 다른 사자들과 달리 이 사자상은 웃고 있지 않다. 근엄한 표정으로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이 눈길을 끈다. 본관 앞 사자상과 비교해 보면, 그 대비는 더욱 분명해진다.

사자상 제막에 즈음해 당시 『대학주보』는 “40년 역경을 딛고 일어난 사자상, 경희의 미래를 밝혀줄 횃불로 남기를”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듬해인 1990년 개교 41주년 특집 기사 역시 이 사자상을 “경희인의 기상을 상징”하는 기념물로 소개했다.

동의마당 사자상이 단순한 기념 조형물이 아니라, 엄숙한 시대를 살아가던 경희인들의 의지와 염원이 담긴 상징물이었음을



사자상 제작에 앞서 만들어진 견본 석고상 (경희기록관 소장)

집착할 수 있다. 그 시절 경희인들은 ‘웃는 사자’의 온화함보다는 웅맹한 사자의 근엄함과 진취성을 택했고, 그 모습에 앞으로 도약할 경희의 미래를 투영했던 것은 아닐까.

전진하는 사자의 앞발치에 새겨진 결연한 글씨는 마치 이 사자가 토해내는 사자후 같다. 그 라운드에 올려 퍼지던 응원의 메시지가 돌에 아로새겨져, 30여년이 지난 지금도 사자상과 함께 캠퍼스 한편을 지키고 있다. 옛 선배들이 미래의 후배들을 향해 남긴 이 문구는 세대를 건너 여전히 살아 숨 쉬는 경희의 다짐이다.

“그대 살아 숨 쉰다면 경희 이름으로 전진하라.”